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때문에 현대인의 영양과 건강에 대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 식품영양 및 건강생활 정보가 방송매체에서 늘고 있지만 전달되어야 할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와는 전혀 다른 왜곡 또는 허위에 가까운 정보가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경우까지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2년도 4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모니터링하여 방송매체의 프로그램 중 정확한 보도와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드라마 중 은가죽시청을 목적으로 하는 드라마를 선정하여 국내 방송매체에 나타나는 건강관련, 식품영양정보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건강관련정보장면의 양은 얼마나 되는 지, 그중 식품영양관련 정보장면의 양은 얼마나 차지하는 지의 양적 평가와 주제, 취재원, 적절성과 부적절성 평가 및 부적절성의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한 질적 평가를 하였다. 뉴스프로그램은 1일 건강관련정보건수는 1.4건으로 전체 기사 6.9%, 전체방송시간의 3.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식품영양정보수는 0.5건으로 건강관련정보의 3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영양정보의 부적절한 평가율은 뉴스 49.3%, 건강정보프로그램 54.0%, 어린이교육프로그램 40.0%, 노인정보프로그램 17.9%, 드라마 63.2%로 나타났다. 부적절한 평가를 받은 정보들은 적정섭취량이나 실생활에 활용할 실천방안 등에 대한 제시가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 부족, 영양가 비교기준이 다르거나, 식품 등의 효과에 대한 내용이 과장된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방송매체에서의 잘못된 식품영양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잘못 전달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모니터가 전문가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문제점을 파악한 후 유형별로 분류,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홍보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또한 매체의 모니터링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언론매체의 건강 및 식품영양정보의 전달에 대한 추이나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